

2008년 건설공사 합동설계반 운영

포천시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 위해

포천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2008년 건설공사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

합동설계반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본청의 해당 실과소와 읍·면·동 토목담당 모두가 참여하며 총 4개반 24명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7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9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설계작업을 2월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합동설계는 2008년도 총 사업대상건수 222건 131억3천3백만원 중 용역설계 단상을 제외한 비교적 규모가 작고 단순공정의 사업으로서 187건 50억3천3백만원이며,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2008년 건설공사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

포천시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조 기발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내실 있는 현장조사와 측량, 일관성 있는 설계 및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8년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포천소재 기업 2월11일까지 신청 접수

포천시는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해 기본 부스임차료·장차비·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체로 KINTEX개최 전시회 참가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경기도 및 산자부 선정 전시회 참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하여 기본 부스임차료·장차비·홍보물 제작비의 60%이내에서 기업당 2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전시회 참가자 지원방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는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cs21.net)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프로농업인이 희망농업을 만든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2008 새해영농설계교육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프로농업인이 희망농업을 만든다'는 주제로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포천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월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농업 핵심 리더반 300명을 대상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이번 교육은 영농교육을 희망하는 전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포천시민 총 2천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 농업마케팅, 쌀 혁신단지 과정 등 농업인 선호도에

맞는 교육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농업, 인삼, 사과, 포도, 한우 등 포천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영농기술교육, 생활개선훈 등 총 13과정을 추진하게 되며 농정시책, 현안과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노동력절감 과 저비용 영농기술, 생활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이번 교육이 신지식, 현장에로기술 등 농업인의 필요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농업여건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본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⑫ 성하플라워

꽃은 고객의 마음을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대표 김 동 옥

아름다운 결정체인 꽃은 순수함 그 자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과 감사, 고마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꽃으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

꽃은 좋은 날과 슬픈 날에 주고받으면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은 반으로 줄어주는 신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꽃은 모든 이에게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고마운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에 개점한 성하플라워(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81-14, 대표 김동욱)는 고객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간동안 지압과 침술을 연구하며 직업 삼아 왔으나 평소 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았고, 부인이 꽃꽂이나 꽃 전문학원을 전공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꽃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하게 된 김 대표는 고객들에게 판매할 화분에도 바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각종사료의 배합과 양질의 플라이트(650°C 이상에서 흙을 구워 만든 돌처럼 생긴 흙) 사용으로 꽃과 식물이 오랜 시간동안 아름답고 신선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집에서 기르는 꽃과 식물 등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으려면 주기적인 분갈이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방법을 알지 못해 생명이 있는 꽃과 식물 등을 죽이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하플라워로 가져오기만 하면 정성을 다해 무료로 분갈이를 해주는 등 고객을 위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경·조사시 주고받는 꽃바구니나 축하, 근조화환 등을 보내는 분들이나 받는 분들이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한번쯤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희망한다. 왜냐 하면 고마움과 감사의 배려로 주고받는 꽃이나 축하, 근조화환 등이 불꽃과 화형 등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만들어졌는가를..." 고객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성하플라워는 1년이 지난 현재 고객 확보차원

120% 고객만족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

꽃배달에 사랑과 정성의 마음까지 담아

독특하면서도 불꽃과 화형이 조화를 이루는 각종 꽃바구니와 꽃다발, 축하화환과 근조화환, 각종 동·서양 란 등을 취급하고 있는 성하플라워는 고객들의 축하와 사랑의 메시지를 격조 높은 꽃배달서비스로 실현하고 있어 고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성하플라워를 통해 꽃바구니나 꽃다발, 축하 화환이나 근조 화환을 구입한 고객이나 받은 고객들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00% 환불이나 제품을 고객의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제공한다는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고객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대표는 성하플라워를 운영하기 전 오랜 시

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노력 중에 있다. 특히 타지역 보다 인구에 비해 동종업체들이 많은 지역이라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꽃배달서비스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고객의 만족 없는 살아있는 업체가 아니다"란 마음을 가슴속에 항상 새기며 고객 만족도 120%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김 대표의 진지한 모습에서 성하플라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홈페이지 www.sungflower.co.kr (문의전화) 전국·해의 꽃배달서비스 080)543-1889, HP.011)758-9088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독특하면서도 불꽃과 화형이 조화를 이루는 각종 꽃바구니와 꽃다발, 축하화환과 근조화환, 각종 동·서양 란 등을 취급하고 있는 성하플라워는 고객들의 축하와 사랑의 메시지를 격조 높은 꽃배달서비스로 실현하고 있어 고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 18

보험으로 생과사를 여유롭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식주가 아닐까? 그러나 의식주가 해결됐다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

죽음이란 본질 앞에서는 어떠한 고민과 문제들조차도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 우선 죽음이란 문제를 살펴보면 의학적으로 인간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단순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이 사랑하는 원인은 수만 가지 질병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몇 가지 대표적인 질병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그 중에서 암이란 것이 2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암이란 체내에 생기는 일종의 종양의 한 형태로써 주위의 정상 조직 또는 기관을 침윤하여 파괴시키고 인 발병으로부터 개체의 어느 기관이든 전이하여 새로운 성장 장소를 만들 수 있어 개체

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질환을 말하며, 체내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도 보통 악성종양을 말한다

사람의 주요 원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암, 혈관(순환기계)질환, 갑작스런 사고 등을 꼽을 수 있다. 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질환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암으로는 간암, 위암, 폐암 등이 있다 할 수 있다.

혈관 질환이 대부분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지며 서서히 진행되는 것에 비해 암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그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르다. 젊은 나이에도 위암 등의 발생빈도가 높은 걸 보면 암에 있어서만큼 안전지대는 허락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와 양면으로 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고령화, 고령화 하더니 이제는 초 고령화란 단어가 심심찮게 떠

올라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몇 년 전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에 대한 가입이 당연시 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이 되자마자 적금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미국이란 사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 사회복지 제도가 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생활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연금보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연금보험의 가입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책으로 누구나가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바로 가입해야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 연령층으로 살아가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으면서 고 연령층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한 위험 노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된다. 연금 등으로 살아가는 데 드는 노후생활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생활자금 보다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도 상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 가는 데 있어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 ...생 과 사! ... 살면서 경제적 보장이 부족한 죽음 앞에서도 물질적 인 걱정이 없을 수 있다면 생활비를 조금 절약해서라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미정 코인포천영업소장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어야

납관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 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 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3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

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와 자녀 2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 8천만원(상속재산 27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6억 2천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억 1천4백만원이 되며,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원(상속재산 27억+상속개시전 10이내 증여한 재산 3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2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과 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용접작업 시 인화성 물질은 격리 또는 제거후 실시해야

▶재해발생 개요

2006년 9월 0일 오후 2시경 경기도 소재 유로폼(건설자재) 제조 작업장에서 피재자는 유로폼 도색작업 중이었고, 근처에서 동료 근로자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옆에 위치한 도색라인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시너 등의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비산하여 점화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용접작업방법 불량 인화성증기 및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인접거리에서 용접불꽃 비산방지조치 등의 화재·폭발 예방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실시하여야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도색작업 장소 등 작업장 배치 부적절 인화성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도색라인은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의 화기장소로부터 이격 되도록 도색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근접거리인 약 2km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색라인 주위를 패널로 막아 놓아 환기가 불충분하여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체류.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용접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



용접작업 시 주위의 인화성물질은 격리 또는 제거하거나 용접불꽃이 비산 되지 않도록 용접불꽃 비산방지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함.

나. 도색작업 장소 등 작업장 배치구조 개선 인화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색장소와 용접장소는 서로 충분히 이격시켜야 하며 도색라인은 통풍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방폭형 콘센트 및 수공구 사용 인화성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도색설비 내부에서는 방폭구조의 전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공구(Non spark type)를 사용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탈퇴 요건은?

소득 있는 한 탈퇴 원천적 불가능

사업중단, 실직 등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 가입종별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가입자에서 탈퇴(상실)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즉 당연 가입대상인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상실할 수 있다.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 상실 시에는 가입자 종별을 불문하고 가입대상에서 상실된다. 여기에 추가되는 가입종별 사유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 취직을 해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60세 도달할 때 가입자격을 잃는다.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 있는 배우자가 가입 중에 소득이 없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본인

의 탈퇴 신청, 3개월 이상 연속해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예외(면제)된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가입해 나가는 게 노후 소득 보장에 유리하다.

가입자 자격상실은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신고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자료실을 활용·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